

축산 악취 저감 70% 달성 목표

냄새 저감 시설 투자 결여 악취 민원 지속 증가세

정읍시가 민선 7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축산농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농가는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투자하고, 민원의 주범인 냄새 저감 시설 투자 결여 등으로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악취 저감 70% 달성을 목표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 대책 추진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개선

▲악취개선,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 최우선

시는 가축분뇨 악취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을 위해 축산농가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냄새 저감 실천 등 축산농가 의식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자정 결의대회와 축산환경개선 워크숍, 냄새 관리 전문교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 10개 사업에 3억4,7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최근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자정 결의대회와 축산환경개선 워크숍을 개최토록 유도하며, 축산환경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농가 스스로가 냄새 저감 실천적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매월 둘째 주에 진행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 운영을 강화하고, 혐오산업으로 인식되는 축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축사 주변에 쾌적한 경관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냄새 저감을 위해 라벤더와 화초, 수목 등을 식재해 향기 나는 농장 가꾸기 사업도 전개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주민 공감 사전예방적 냄새 관리 '총력'

시는 '주민 공감 사전예방적 냄새 관리' 분야에서 14개 사업에 386억8,1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환경부의 축사 시설의 운영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추어 분사 형태를 개방형에서 밀폐형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체감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분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공정으로 이송하고, 처리수는 다시 분사로 유입시켜 잘 부



축산문제 해결 현장 방문



악취 측정

축산농가 자발적 자정 결의 유도

환경개선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사전예방적 냄새 관리 분야

14개 사업에 386억8100만원 투입

냄새 저감 지속화·자연 순환농법 실현

민관농 통합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

속된 액비를 슬러리피트 내부에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는 액비 순환시스템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농장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을 엄격히 지도 관리해 분뇨 퇴비화를 촉진시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시는 주민 생활 속에서 냄새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내 폐사축 처리시설 및 장

비를 지원하고, 마을 안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과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60억원을 투입해 마을 내 축사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폐업 처리할 계획이다.

또, 농장별 냄새 관리 공무원 책임 담당제와 축산사업장 냄새 예방 모니터링, ICT 기반 축산환경 시스템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등 축산냄새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농장 냄새 저감 지속 추진, 자연 순환농법 실현

시는 '축산농장 냄새 저감 지속 추진'을 위해 23개 사업에 488억6,300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농장 냄새 저감 시설 보급과 유지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과 장비 지원, 액비 저장조 개보수, 축분 고숙발효시설 보급 확대, 축산악취 심각 지역 슬러리 제거, 착유 세정수 정화 처리시설 및 악취 저감제 자동 살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농가 미생물 활성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액비와 퇴비 유통 전문조직체를 육성해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함으로써 퇴비를 적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자연 순환농법을 실현해 나간다.

이와 함께 농장 악취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맞춤형 악취 저감을 구축해 나간다.

▲'상생과 화합', 적극 소통 냄새 관리 거버넌스 활성화

'적극 소통 냄새 관리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에는 12억3,700만원을 투입해 축산냄새 명예감시원 위촉 운용, 민관농 통합협의체 구성, 축산냄새 상시감시단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민·관·축산농가 합동 투어 모델을 개발해 양돈농가 스스로 냄새 저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냄새 관련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현장 투어를 실시해 양돈장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 해소와 상

생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농 통합협의체(가칭)를 운영하며, 축산냄새 명예감시원을 위촉 운용해 냄새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과 소통 활동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축산냄새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축산냄새 종합 관제 센터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냄새 관리 제도 운영

시는 축산·환경부서, 축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성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중점시책' 등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축산냄새 저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축산냄새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환경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체제로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축산악취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협조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축산냄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갈등 없는 공존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잠시 집에 머물러주세요.
봄꽃구경도 잠시 미뤄주세요.

대신, 봄꽃보다
울망졸망한 아이들의 웃음을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정읍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대한 외출과 이동 자제
특히 몸이 안 좋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 방문 최소화하기
- 가족이나 지인과의 모임 자제 등 사람 간 접촉 최소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으면 등교·출근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며 3-4일 경과 관찰하기
- 유증상자로 분류된 검사 대상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 선별진료소나 병원에 갈 땐 가급적 자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정읍시 JEONGEUP-SI | 코로나19 감염 의심 신고 1339
정읍시보건소 ☎.539-6111~2